

---

# 2020년 제50호 방송심의보고서

---

2020. 12. 4. ~ 12. 10.



한국정책방송원  
KTV 국민방송

프로그램	국민리포트		
방송일자	2020. 12. 4.	시청률	0.000

## 【총 평】

어머니 성 따르기, 장애인 전용 미용실, 숏 폼 콘텐츠(short form contents) 등 독특하지만 우리의 이웃들의 문제를 짚어주는 주제들로 전문 뉴스 프로그램 못지않은 내용을 담고 있었다. 사람들의 관심이 크지 않지만 의미있는 이야기들을 찾아내 부각하는 국민기자들의 노고가 돋보였다. 방송시간과 소개되는 이야기 아이템도 늘었지만 내용은 오히려 더 충실해졌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 【구성 및 내용】

- 불안한 '어린이 보호구역'...사고 위험 여전  
광주 어린이 보호구역 사고를 비롯해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어린이 보호구역의 허술한 관리 실태를 지적했다. 실제로 어린이 보호구역을 돌며 차량이 얼마나 주의를 하는지 취재하면서 어린이 보호구역 관리 실태를 여러모로 강조한 뉴스였다 .
- '엄마 성 따르기'...혼인신고 때 결정 불합리하다  
엄마 성 따르기는 참신한 면이 돋보였고 달라진 현대인들의 인식과 변화된 사회적 분위기를 알 수 있었다. 실제 부부의 사례를 통해 엄마 성을 따르기까지 현실적인 문제점과 제도적인 장벽을 지적했다. 어머니 성을 따르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는 것과 결혼당시에 누구 성을 따를 것인가 결정해야 하는 불합리도 알려주었다.
- '마음 편하게 커트해요'...장애인 전용 미용실 '함께 헤어'  
성남시의 장애인 전용 미용실 '함께 헤어'를 소개하고 장애인들의 소감을 전했다. 실제 장애 아동의 커트 장면을 준비해서 얼마나 커트하기가 힘든지, 또 아이의 엄마가 일반 미용실에서 느꼈을 불편함까지 온전히 담아내어 좋았다. 원장의 인터뷰를 통해 함께 살아간다는 것의 의미를 부각시켰다.
- 눈앞에 닥친 '기후 위기'...대학생들 행동 나서  
우리의 관심 사각지대에 놓인 기후문제를 이끌어낸 독특한 아이টে으로 대학생들의 기후 위기 캠페인의 취지를 소개하고 그 현장을 취재해 시청자들에게 환경위기에 대한 경각심을 갖게 했다.
- 한국 관광·문화 알린다...주한 외교사절 팸투어  
강원도 홍천군과 경기도 가평군에서 펼쳐진 북미주 지역 외교사절들의 한국 문화 체험을 소개하였다. 이를 통해 오랫동안 한국 알리기를 위해 노력한 지역민들의 노력을 엿볼 수 있었고, K-컬처의 원동력이 무엇이었는지를 느낄 수 있었다.
- 전통시장이 예술이야! 놀러 오세요  
낙후된 시장 환경을 살리기 위한 예술인과 주민, 지자체의 노력을 통해 위축된 시장과 예술이 공존하고 공생하기 위한 바람을 따뜻하게 잘 그려냈다.

프로그램	길 따라 인문학		
방송일자	2020. 12. 5.	시청률	0.006

### 【총 평】

‘인문학 박물관, 성북동 길을 걷다’는 문학과 예술가의 삶과 혼이 서려있는 마을의 풍광과 작품 활동, 지역사랑과 나라사랑 정신 등을 깊이 있게 들여다보았다. ‘인문학 박물관’ 제목과 같이 시인과 소설가, 조각가는 물론 만해 한용훈, 조지훈 시인, 김광섭 시인 등이 등장해 무게감을 더했다. 성북동에서 볼만한 곳으로 길상사 극락전, 만해 한용운의 심우장, 김광섭 시인의 ‘성북동 비둘기’ 작품 무대가 된 북정마을의 모습이 깊이 있게 다가왔다. 길상사의 유래, 백석시인과 1000억 원을 시주한 김영한의 러브 스토리 구성이 감동으로 다가왔고, 한 겨울에도 불을 지피지 않고 독립의지를 불태운 만해의 애국정신이 옷깃을 여미게 했다.

### 【구성 및 내용】

도성의 북쪽에 있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인 성북동에서 터를 잡고 살아온 문학과 예술인들을 둘러보았다. 성북동에 기대어 살면서 우리 문화예술계에 큰 발자취를 남긴 인물들의 삶과 창작활동의 흔적을 쫓아가 잠시 진한 정취에 빠져들 수 있는 시간이었다. 한강변 일출로 시작해서 낙산 성곽의 야경으로 마무리한 프롤로그 영상은 자연스럽게 프로그램 속으로 이끄는 힘이 있었다. 김광섭 시인의 ‘성북동비둘기’로 시작해서 ‘저녁에’ 시구(詩句)를 인용하면서 마무리했는데 수미쌍관법으로 앞뒤를 잘 매치한 좋은 구성이었다.

백석과 법정스님 철학과 서사가 담긴 길상사, 만해 작품이 탄생한 유택 심우장, 시인 조지훈을 기념하는 방우산장, 성북동 비둘기 작품 조형물이 있는 공간, 이태준 작가가 머물며 집필활동을 한 수연산방, 이효석 정지영 이상 등이 함께 한 최순우 옛집 등 유독 근현대문학들을 두루 만날 수 있었다. 문학이라는 장르의 특징과 향기가 진해서, ‘테마와 색깔이 확실한’ 방송이었다.

법정스님의 유언장과 유품 등을 통해 그의 삶을 들여다보고, 길상사에 관한 뮤지컬 공연을 소개해 장소의 의미를 극대화시켰다. 시인 한용운 선생의 의지가 집약된 공간 시무장에서 그의 일상을 재연극으로 보여주어 인물에 대한 이해를 도왔으며, 뮤지컬 ‘나와 나타샤와 흰 당나귀’의 한 장면을 통해 작품의 성격을 알 수 있었다. 이외에 이태준·최순우 옛집 등 문인들의 업적과 더불어 그들이 머물렀던 공간의 건축학적 의미를 짚어주어 문화유산으로서의 가치를 일깨웠다. 조지훈 시인의 육필 미발간 시집 원본, 한상수 선생의 자수 공예, 송영수 작가의 조각상, 최만린 작가의 조각 등 성북동 공간에서 탄생한 다양한 예술가들을 알 수 있었으며, 그들의 꿈과 열정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하는 기회였다.

‘성북동’이라는 지역 자체가 인문학의 공간이었고, 동네와 길 곳곳을 다니는 것 자체만으로도 문학과 예술가들의 시간이 전시된 듯한 특징이 있었다. 문화를 멀리 추상적으로 느끼게 하는 게 아니라 가깝고 피부에 와 닿게 느끼도록 한 방송이었다.

프로그램	사운드멘터리 풍경 소리		
방송일자	2020. 12. 5.	시청률	0.111

### 【총 평】

“만추의 소리, 정동길”은 아름다운 정취와 가슴 먹먹한 돌담길 이야기를 가득 담아낸 영상 풍경이었다. 서울 덕수궁 왕궁수문장 교대식을 시작으로 도시인의 행복과 늦가을 서울 중심가 정동 돌담길에서만 들을 수 있는 풍경소리를 담담하게 그려냈다.

특히, 정동 돌담길과 낙엽 길을 걷는 사람들, 역사를 관통하는 유서 깊은 정동길, 만인의 노래인 ‘광화문 연가’비, 사랑스런 연인들이 걷는 덕수궁 돌담길 등 정동길 도심의 가을 정취를 느낌 있고 조화롭게 그려냈다.

### 【구성 및 내용】

서울 도심에서 가을 정취를 느낄 수 있는 정동길이 소개됐는데, 가을이 깊어가는 정동길 주변, 이문세의 노래, 행인들의 추억, 길을 안내하는 배우 김학철의 추억까지 정동길의 낭만을 충분히 느낄 수 있어 좋았다. 개화기에서 근대초기 이르기까지 유서 깊은 건물들이 한데 모여 있는 정동길 모습, 그 속에서 만난 사람들과의 정동길 추억의 옛길을 더듬으며 가을 풍경 소식을 전했다.

전체적인 구성은 덕수궁의 왕궁수문장의 교대식 행렬부터 시작해서 덕수궁 돌담길의 낙엽, 정동길 거리의 가을 풍경을 담아냈다. 이 밖에 구 신아일보 별관과 한국가톨릭 수녀원, 구 러시아 공사관을 돌아보고 고종의 길을 걸으며 근대 역사의 흔적도 찾아보았다. 그리고 정동극장의 지난날을 회상하고 그 시절에 즐겨 먹던 추어탕을 맛보았다.

이번 정동길 프리젠티는 전통 사극 전문 배우 김학철씨로 도시인의 행복과 늦가을 서울 중심가 정동 돌담길에서만 들을 수 있는 풍경소리를 담담하게 그려냈다. 배우 김학철 씨는 1년 전 청소년 대상으로 한 공연, ‘고종의 길’을 작품하면서 느낀 감정을 정동길과 59년 만에 개방된 ‘고종의 길’에서 울컥하는 진정성을 보여주었다. 한적한 벤치에 앉아서 은행잎을 올려다보며, 운치 있게 시작했고 덕수궁으로 이동해서 시끌벅적한 왕궁수문장들의 교대식 행렬로 장면이 전환되면서 시선을 끌었다. 특히 사극을 촬영할 때 군사들의 함성소리가 들리는듯하다고 언급하면서 프로그램의 색깔을 잘 살려냈다.

정동제일교회 거리를 지나면서 ‘광화문 연가’의 작곡가 故 이영훈 작곡가의 추모비 앞에도 잠시 멈추어 노래를 부르며 가을을 느끼는 장면도 꽤 운치가 있었다. 여기서 배우가 직접 불러주었는데, 노래가 아니라 풍경화라고 얘기한 것처럼 가사에 거리 풍경이 다 들어있어 색다른 기분으로 감상했다.

아관파천 당시 고종이 걸었다는 ‘고종의 길’은 그 참담한 심정을 느낄 수 있었다. 구 신아일보 별관과 한국가톨릭 수녀원을 거쳐 구 러시아 공사관에서 근대 역사의 흔적을 잠시 느껴보기도 하고 고종의 길을 걸으며 고종의 행보를 잠시 언급하는 대목에서는 뭉클한 감정을 느끼게 했다.

프로그램	여러분의 북마크		
방송일자	2020. 12. 5.	시청률	0.040

### 【총 평】

‘NOW 北’은 바이든 행정부에서의 대북정책을 짚어보고 북한이 새로운 북미관계를 설정하기 위한 해법을 살펴보았다. 또, 남북미 관계 개선과 한반도 평화를 위한 우리의 노력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살펴보았다. ‘단박톡’은 북한에서 축산행정을 담당했던 출연자를 통해 최근 악화되고 있는 북한 식량난 실태를 점검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남북협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해결책으로 제시해 벽에 부딪힌 남북관계의 돌파구 마련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었다.

### 【구성 및 내용】

‘NOW 北’은 통일문화연구소 이영종 소장이 출범을 앞둔 바이든 행정부, 그리고 미대선의 결과에 대한 북한의 입장에 대해 얘기했고, 단박톡은 굿파머스 소장을 통해 식량난을 타개하기 위한 북한의 축산업에 대해 다루었다.

‘NOW 北’은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정책이 이전의 탑다운 방식에서 실무자 중심의 바텀업 방식으로 변화할 것이고 실질적인 결과를 만들어낼 수도 있을 것이라고 전망해 유익했다. 또, 북미관계가 순항하기 위한 요소들을 짚어주었는데, 북한이 추가도발을 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과 내년 7월에 열리는 일본 도쿄올림픽이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밖에 바이든 행정부의 외교·안보 핵심 2인방에 대해 분석해 시청자의 흥미를 이끌었고, 토니 블링컨 국무부장관 내정자는 북한이 국제사회에 대한 비핵화 약속을 지켜야 된다고 밝혔고, 설리번 국가안보보좌관 내정자는 과거 북한을 진지한 협상장으로 돌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압박을 강화하는 것이라고 밝힌바 있다. 두 내정자는 기본적으로는 현재의 대북제재를 통한 압박으로 비핵화협상을 유도할 것으로 보인다.

단박톡은 현재 북한이 겪고 있는 심각한 식량난을 소개했다. 농업에 집중했던 정책방향이 축산업과의 균형적 발전을 추구하는 소위 ‘고리형 순환생산체제’로 전환하고 있다는 사실을 전했는데 북한의 고민이 적지 않다는 점을 느낄 수 있었다.

국제기구들이 북한 식량난을 심각하다고 평가하고 있고 북한은 특히 올해 코로나-국제대북제재-수해까지 3대악재가 겹쳐 식량난이 더욱 최악의 상황임이 알려져 있다. 북한 식량 지원 필요성 강조한 WFP가 2020년 노벨 평화상에 선정되었다는 소식을 통해 북한 식량난의 심각성을 인지할 수 있었다.

북한이 다출산을 장려하는 사회적 배경을 분석하고 이것이 식량난 타파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했다. 이외에 식량난 해결을 위해 주민들에게 집짐승 기르기를 장려하는 등 다양한 정책을 소개하고 돼지 1마리와 주식 옥수수를 치환하여 설명하는 등 주민 생활상을 이해할 수 있게 내용을 구성했다. 전반적으로 북한의 식량난 심각성을 알리고 근본적 해결의 필요성을 인지할 수 있는 내용이었다.

프로그램	우리동네 개선문		
방송일자	2020. 12. 5.	시청률	0.003

## 【총 평】

충북 음성군의 물이 빠지지 않는 도로의 “빗물 ‘상습 고임’ 민원…배관교체로 해결”과 인천시 남동구의 노면이 훼손된 고가다리 “다리 위에 균열이?…안전신문고 현장 점검”을 방송했다. 특히, 안전신문고 및 행정관계 기관의 민원 신고에 따른 이행 조치 및 불편사항 개선 조치를 원활하게 추진하는 모범적 사례들을 잘 보여주고 있다.

우리동네 개선문의 취재 구성 부분에 변화가 있었는데, 관점을 달리한 아이템 선정과 취재, 지자체 관계자 인터뷰 위주에서 지역주민 위주의 구성, 관계자의 민원 해결 계획보다는 민원 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노력들이 잘 나타나 집중도를 높였다.

## 【구성 및 내용】

### ■ “빗물 ‘상습 고임’ 민원 … 배관교체로 해결”

지난 5월 행정안전부 안전신문고에 접수된 민원으로 우천 시 상습적 빗물 고임으로 충북 음성군 주민들이 겪는 불편을 소개하였다. 충북 음성군 오궁마을 진입도로 상습 침수에 관한 민원으로 음성군은 도로 높이를 조절하는 것은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이어서 불가능하고 현재 10cm에 불과한 배수관로를 30cm로 바뀌기로 하고 1,500만원의 예산을 반영해 내년 우수기가 오기 전에 공사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신국진 기자는 해결책을 찾기 위해 지역의 지리적인 문제, 민원 해결 위한 사업비 문제, 배관 근본적인 원인 등 다각적인 원인을 찾아냈다. 특히, 사소한 민원이지만 주민 입장에서 근본적인 원인 해결부터 하려는 지자체의 좋은 사례를 소개해 시청자들의 흥미를 유발했다.

### ■ “다리 위에 균열이? … 안전신문고 현장 점검”

인천광역시 남동구 서창고가교의 노면 균열에 대한 민원으로 지난해 11월에 민원을 제기했지만 아직까지 해결되지 않아 그동안 민원 해결이 늦은 이유와 올해 안에 노면 재포장 및 빗물 처리 시설을 마무리할 것이라는 설명과 민원인의 반응까지 소개했다.

최영은기자는 주민들이 1년 넘도록 겪고 있는 ‘교량 균열 불안’을 인천 남동구의 교량 민원 현장을 찾아가서 관할 기관과 지자체의 행정 절차 문제로 1년 이상 지연되고 있는 원인과 교량 안전 진단 결과를 소개했다.

최기자는 2018년에 발생한 이탈리아 모란디 대교 붕괴는 많은 사상자가 나왔는데, 이미 2년 전부터 균열 조짐을 보여준 다리여서 예고된 참사였음을 강조했다. 이번 민원도 사전 예방을 위한 안전점검 취재였다. 특히, 행정절차 문제로 1년 이상 지연된 안전점검 문제를 꼬집었고, 안전점검 결과 교량 설계 때부터 예상한 자연스런 현상이라는 점, 통행의 불편함이나 통행자들의 위험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한 보수 정비를 확답 받았다.

프로그램	법보다 법		
방송일자	2020. 12. 6.	시청률	0.011

### 【총 평】

최근 들어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 연인간의 폭력 사건과 그에 비해 법적 처벌 조항이 미비한 사회적 법률문제, “연인의 두 얼굴, 데이트 폭력”문제를 다뤘다. 경남과 부산에서 벌어진 데이트 폭력 사건을 계기로 최근 벌어지고 있는 데이트 폭력 사건의 유형과 법률적인 부분, 대응 방법을 소개해 줌으로써 데이트 폭력과 관련한 애매한 처벌과 피해자 보호법 개선이 절실함을 잘 드러냈다.

특히, 데이트 폭력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을 주지시켜 주었는데, 사람들이 흔히 생각하기 쉬운 ‘데이트 폭력’은 범죄이고 문제임을 인식해야 한다는 점, 혼자서 해결하려고 하면 안 된다는 점 등 시청자들에게 알려주었다.

### 【구성 및 내용】

부산 데이트 폭력 CCTV 영상으로 시작해서 눈길을 끌었고, 데이트 폭력은 다른 범죄행위와는 다르게 인간관계를 바탕으로 하는 범죄여서 피해여성이 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점에 초점을 맞추어 데이트 폭력의 특징을 정의했다. 이 밖에 연간 데이트 폭력 신고 현황과 검거율과 구속비율을 비교하면서 데이트 폭력의 특징을 부각시켜 주었다.

첫 번째 전화상담 사례는 전형적인 데이트 폭력을 겪고 있으면서도 실제로 데이트 폭력으로 인지를 하지 못하는 피해자의 태도에 놀랄 수밖에 없었다. 특히 데이트 폭력 체크리스트를 준비해 도움이 되었고 폭력과 박력을 착각하지 말라는 변호사의 메시지가 인상적이었다. 또, 피해자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여성 긴급전화, 여성폭력 사이버 상담 홈페이지 소개도 덧붙여 많은 도움이 되었다.

두 번째 사례는 다혈질 남자친구 때문에 힘들어하다가 이별 통보를 한 뒤 성관계 동영상 유포 협박을 받고 있는 초등학교 교사의 사례를 소개했다. 리벤지 포르노로 협박당하는 사례여서 무거운 분위기로 이어졌는데, 법률적인 자문이 많은 도움이 되었다. 불법 촬영죄부터 언급해서 리벤지 포르노의 정의, 대응법, 신고 요령 등을 아주 구체적으로 알려주어 실제 피해자들에게도 많은 정보가 되었을 것 같다.

세 번째는 남성사례로 데이트 폭력의 선입견을 깨는 의미가 있었다. 피해자가 남성이라는 점도 그러했고 데이트 폭력의 유형도 앞선 유형과 달라서 눈길을 끌었다. 여성의 협박과 1인 시위, 스토킹으로 이어져, 스토킹 처벌법에 대한 내용을 소개했다.

일반적으로 데이트 폭력이라고 하면 주로 물리적인 행위만을 연상하기 마련인데 그 외에도 여러 유형의 데이트 폭력이 있다는 것을 강조해주는 사례였고, 이력이 많이 남을수록 가해자에게 불리한 상황을 만들어줄 수 있다고 강조한 대목이 의미가 있었다.

‘무엇이든 물어볼 法’은 공유 키보드와 추돌 사고에 대해 손배 가능성과 과실 상계 가능성까지 현실적인 조언과 최근 개정된 법률도 언급하면서 현실감 있게 접근했다.

프로그램	살어리랏다		
방송일자	2020. 12. 6.	시청률	0.156

### 【총 평】

‘가족의 삶을 치유한 소백산 흙집’은 소백산 속에 터를 잡아 흙집과 함께 자연농을 실천하는 산속 부부의 일상을 담담히 그려냈다. 귀산 10년차 50대 초반 부부의 생태주택 살기, 자연농법으로 농사짓기, 민박손님을 맞으며 자연치유를 공유하는 내용으로 구성도 탄탄했다. 특히, 숨을 쉬는 생태주택, 풀과 곤충과 공생하는 자연농법, 야생 산나물 식사 모습이 자세하게 그려져 자연스러운 정보와 메시지로 몰입도를 높였다. 또한, 주인공의 확고한 생활신념과 철학을 털어놓는 맛깔스런 대화 내용이 흡인력을 높였고, 소백산 야생 산나물, 산골부부의 오붓한 모닥불 정담, 황토집 연기, 가마솥 밥과 누룽지 등 푸근한 옛 정취를 되살려 어릴 적 추억을 소환했다.

삶을 대하는 자세는 어떠해야 하는지, 자연의 질서를 거스르지 않으면서 살아간다는 것은 무엇인지에 대해 깊이 생각해볼 수 있는 계기가 됐고 부부의 소박한 생각이 공감의 폭을 키웠다.

### 【구성 및 내용】

충북 단양군 소백산 자락에서 생태주택을 지어 민박, 자연농 등을 지으며 살아가는 귀산 10년차 부부의 이야기를 다루었다. 생태주택, 자연농에 대한 부부의 철학, 그리고 민박을 하면서 생긴 단골손님들과의 일상을 소개했다. 특히, 시간의 흐름에 따라 일상을 쫓아가는 방식으로 구성해 있는 그대로 바라볼 수 있어 좋았고 자연스럽게 감정이입이 되는 효과가 있었다. 주인공 부부가 스토리텔링의 주체가 되서 내러티브 형식으로 이야기를 끌어갔는데 소재가 풍기는 분위기와 잘 맞아 좋은 느낌을 만들어냈다.

소백산 자락에 기대서 자연에 순응해서 큰 욕심 없이 살아가고 있는 부부의 푸근한 산골 일기였다. ‘마음을 나누는 집’, “가장 자연스러운 집을 지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자연의 순리를 거스르지 않는 자연농’ 등이 특히 가슴에 와 닿았다.

귀산을 하면서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이 집이었는데, 소백산에 해가 되지 않는 흙부대 집을 지었다. 자연스레 환기가 되고 사람에게 좋은 생태주택을 위해 많이 고민하며, 손님들을 위한 황토방과 가족이 지내는 집이 벗짚 등을 적용한 생태주택이다.

농약을 쓰지 않고 풀도 뽑지 않고 풀과 곤충과 공생하는 자연농법의 이점을 설명하며, 자연농은 자연의 자생력을 높여 인간의 건강을 이끈다는 주인공의 확고한 생활철학과 신념이 대화를 통해 잘 드러났고 이를 통해 각박하게 생활하는 도시민들에게 그림과 기다림의 여유와 중요성을 알렸다. “밭에 20가지의 풀이 있으면 자연생태계가 복원된 것”이라는 이야기에서 주인공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농사를 짓고 있는지 잘 느낄 수 있었다.

또, 마을 일을 돕는 대목과 학교에서 아이들에게 자연농의 중요성을 가르치는 모습에서 주인공의 삶을 깊숙이 들여다볼 수 있어 좋았다.



프로그램	어서 오세요, 총리 식당입니다		
방송일자	2020. 12. 8.	시청률	0.005

### 【총 평】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 공관에서 손님을 초대하고, 총리가 직접 식사를 서비스 한다는 구성이 신선했고 총리 공관을 엿보는 호기심까지 충족시켜 친밀도를 높였다. 특히, 정부 고위직의 이슈를 다루는 토크인데도 흐름이 매끄러웠고, 초대손님이 강경화 외교부장관이 라는 점에서 호기심과 흥미를 이끌었다.

최근 미국행을 다녀 온 것을 기본으로 한미관계를 먼저 살피고 그 속에서 한반도 비핵화 나 방위비 분담금에 대한 내용 및 여러 이야기들이 잘 다루어졌다. 또, 외교부에서 앞으로 해야 할 부분이나 국민들께 바라는 점도 강조되었다. 뉴스나 시사 프로그램에서 많이 다루던 내용을 부드럽고 편안한 분위기에서 들을 수 있어서 몰입력도 한층 높아졌다.

### 【구성 및 내용】

주요 구성은 ‘손님맞이’를 시작으로 식사 초대 손님 인사, 총리가 직접 식사 서비스, 오늘의 메뉴와 추억 인터뷰, 신행정부 출범 앞둔 미국과 한국 공조, 국격을 높이는 외교 활동, 총리와의 식사 소감, 다음 초대 손님 기대’ 등으로 마무리 지었다.

정세균 총리가 직접 일어서서 식사를 대접하는 장면이 굉장히 참신했고, 총리와 식사를 한다는 자체가 벌써 부담스럽기도 할 법한데 총리가 리드를 편안하게 잘 해주어 어색하거나 부담스럽지 않았다. 또한, 식사 시간에는 방역 지침을 잘 지켜 거의 대화를 하지 않고 식사만 하는 장면도 보기 좋았다. 정세균 총리는 초대 손님과의 대화를 편안하게 이끌 뿐만 아니라 어렵지 않는 단어 사용으로 시청자에게 편안함을 안겨주었다.

정세균 총리와 강경화 외교부장관이 나눈 토크 내용은 한미 관계부터 이야기를 시작했는데, 얼마 전 미국을 방문해 쿤스 상원의원과의 만남 내용 위주로 우리 정부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살폈다. 이 밖에 코로나19로 인한 펜데믹 상황에서 K-방역의 위상, 코로나19 상황에서 재외국민의 송환 과정에서의 뒷얘기, G7의 경제능력에 걸 맞는 외교 분야의 위상 구축 필요 등 외교 분야 역량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고 했다.

또, 외교부 장관이 분식을 즐겨 먹는 이유, 김밥과 떡볶이가 장관에게 주는 추억 이야기, 한미동맹 현안과 방위비 문제, 북핵 문제와 남북관계 방향,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위한 한미 노력, 북미대화 재개와 남북 대화 재개 위해 공조 노력 중, 코로나19 대응위한 협력 의사, 기후변화 대응 위한 관심과 한미 간 협력 등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다.

특히, 강장관의 BBC 인터뷰가 강조되었는데, 국가 수준을 보여준 외교 역량과 외교활동, G7, 영사콜센터의 무료화를 위한 디지털화 작업, 외교부 역량 발휘한 재외국민 K-방역과 국가의 의무와 국민 보호, 외교부 장관이 만난 총리, 자발적 국제구호기부금이 세계 2위인 한국인, ODA 0.3% 목표, 국제 기부는 국격을 완성하기 위한 재료이면서도 국민의 공감에 필요한 부분이라는 점 등을 공유하며 편안하게 이야기를 마무리했다.